

'온돌'과 합당한 대접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봄이 왔다. 안도감이 밀려든다. 겨울, 참 잘났다. 온돌 덕분이다. 'K 브랜드' 맨 앞에 '온돌'을 놓고 싶다. 온돌은 한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한국의 힘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게 한다.

오늘날 외국인들은 '한(韓) 스타일'에 열광한다. 특히 한국에서 겨울을 낸 외국인 중에는 온돌생활에 신선한 감동을 고백하는 이가 많다. 심지어는 온돌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다시금 온돌을 추억한다. 온돌도 당연히 한류의 새로운 장르로 대접받아야 한다. 특히 'K-주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온돌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일 수 있다. 온돌은 오래전부터 몸과 몸으로 체득, 계승해온 우리 '삶의 기술'이다. 우리만이 발현해온 정신이다. 온돌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프랑스의 와인이나 이탈리아의 피자처럼 우리의 문화 정체성, 즉 온돌을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중국은 온돌도 김치나 한복처럼 자기문화라고 '도적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특히 그렇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옥스퍼드 사전에는 'ondol(온돌)'로 표기돼 있으며 '한국의 고유한 바닥 난방장치'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온돌은 아랫목이 덮혀지듯 은근하면서도 집요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인의 아랫목을 점령해가고 있는 온돌이야말로 한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재 독일 등 유럽국가에선 신축된 주택의 절반 이상이 온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온돌 사용을 권장하고, 양로원 등에는 아예 의무적으로 온돌을 적용토록 법제화한 경우도 있다.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도 온돌방식을 적용한 주택은 '고급' 혹은 '부(富)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미 일본에서는 온돌 사용이 피부 질환, 감기·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힘입어 고급 양로원의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리 조상들이 이뤄온 '참살이' 전통을 바탕으로 온돌산업을 육성하느라 각축을 벌이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는다.

온돌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찜질방

의 따뜻한 바닥이 그야말로 힐링공간인 것처럼 말이다. 비용도 차이가 크다. 외국처럼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경우 그 비용이 온돌보다 4~5배 많이 든다. 우리는 겨울에도 집안에서 반팔차림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코타츠안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한 사례도 수시로 나타날 지경이다.

온돌은 우리 삶의 방식에 스민 DNA가 어떻게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또한 우리 전통이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 온돌에는 미래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 높은 감성이 담겨 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민족의 정체성, 문화적 속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면면히 이어온 문화산업이다. 여전히 우리를 상징하는 미래 산업인 셈이다. 그야말로 명품이며 미래 문화콘텐츠다. 그러므로 이제 온돌 좀 제대로 대접해주자. 유형적인 유산은 생명이 유한하다. 그러나 무형 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며 미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온돌산업 만큼은 우리 먹거리임을 분명히 챙기자.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이통사, 중간요금제 빠르게 내놓아야



**기지수첩
채윤정
(산업부)**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40~100GB 구간 내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동사들이 24GB에서 31GB의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데이터 양이 미미하고 가격도 1만원 안쪽으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더 큰 데이터를 주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상반기 중 중간 구간의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 5G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현재 새로운 내용의 중간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새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할 만한 요금제를 설계해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40GB 이상의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내놓은 중간요금제는 이용자들이 선택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이 부족해, 결국 많은 고객들이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 출시를 두고 '통신사의 수익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 50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내놓는다면 실제로 이 중간요금제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1만원 안

쪽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시니어 요금제도 LG유플러스는 이미 월 4만 5000원의 요금을 내놓았고, 이번달 경 SKT와 KT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요금제 출시로 당장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제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지난해 이통사들에게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중간요금제 내용에 대해서는 뒷집을 찢던 책임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통신 분야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한 만큼, 정부도 이통사에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cho@

오늘의 운세 3월 8일 (금 2월 1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마음을 단단히, 48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는 될 수 없다. 6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2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좋은 날. 84년생 성실과 신용이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소 3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운전조심. 4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61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는다. 73년생 이간질하는 사람을 경계. 85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호랑이 38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50년생 아랫사람의 조언으로 어려움을 극복. 62년생 유유상종(類類相從)이니 탁한 무리에 물들지 않도록. 74년생 이성친구보다는 악기를 배우보자. 86년생 넓은 마음과 아량이 필요.

토끼 39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길이 보인다. 51년생 내가 민아야 남도 설득 시킬 수 있다. 63년생 걱정만하고 해결은 못한다. 75년생 자극한 마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87년생 돼지띠와의 거래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말 40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52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힘내자. 64년생 물은 고이면 썩기 시작. 76년생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놓친다. 88년생 스스로 뿌린 씨앗은 스스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

뱀 41년생 추억이 괴로운 배고픔으로 변한다. 5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65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77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준비하자. 89년생 불행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보라.

말 42년생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54년생 잘못되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도록. 66년생 매매수가 있으니 부동산 거래가 원만. 78년생 술 마시고 싶은 본능을 억제할 줄 알아야. 90년생 재물이 든구름과 같지만 그래도 떨어야만.

양 43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으니 마음을 비워라. 55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라. 67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79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온다. 91년생 될성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원숭이 44년생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에 신경. 56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68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박을 챙겨라. 8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생각하지 마라. 92년생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나오니 성실과 신용을.

닭 45년생 시장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57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69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8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특히 말조심. 93년생 이직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면 손실은 없다.

개 46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 58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70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82년생 자신에게 있는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도록. 94년생 자기 흥 열 가진 사람이 남의 잘못을 흉본다.

돼지 47년생 끓는 물을 꼭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알 것인가. 59년생 걷는 운동을 시작해보라. 71년생 이사준비를 한다. 83년생 오늘부터 가계부를 정리하는 계획을. 95년생 직장에서 내게 잘해주길 기대 말고 내가 업무파악을 빨리해서 도움 되도록.



**김상회의
사계
간단 풍수**

풍수학은 긴 역사를 지닌 실천학이다. 마냥 신비적인 것도 아닌 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경험과 통찰 지혜가 집적된 실용학이다. 풍수의 가장 일반적인 체험은 당장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떠올려 보면 된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단박에 근처 아파트 주민이나 건물의 사람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분쟁이 시작된다. 일조권이니 조망권이니 하는 것은 양택풍수에 해당된다. 생활에 있어서 당장 야기될 손해와 불편이 대입되는 것이다.

조상들의 뒷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음택풍수가 적용된다. 좌정룡 우백호며 배산임수 개념이 들어서는 것이다. 음택풍수라 하더라도 별이 잘 드는 양지를 당연 선호한다. 산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햇볕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곳이 최고이다. 또한 사주의 속성을 풀이할 때 물상物象을 대비시키는 지라 물상풍수학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토끼띠나 묘 일주의 사람은 나무와 풀이 있는 전원에 사는 곳을 좋다고 본다. 아파트 같은 곳에 산다면 거실에 관목이나 작은 나무화분을 키우는 것도 권장한다. 토끼는 관목이 있는 초원이 길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구산동(龜山洞)이나 구포(龜浦)처럼 거북이 '구'자가 있는 동네는 거주지로서는 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특히 구포 같은 곳은 큰 강물이나 바다 어귀에 속하므로 더더욱 금물인데 이는 '별주부전'에서도 보듯이 자라의 궤임에 빠진 토끼가 깊은 물속 용궁에 가서 겪은 고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반대로 용띠나 용 일주의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은 길지라 할 수 있다. 동네 이름에 물이 들어가 있는 여의도나 한강근처 용산 등은 원만하다 못해 항상 자기기를 펼치며 살 수 있는 기본점수를 따놓은 곳이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린다**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를 늘려주세요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7		
			9		
3		5	4		8
		2	9	1	3
			7		
1	2				6 5
		3			1
6		7			2 3

3	7				4
6					9
			2		
			5 3		
			1	2 9 5	
7				6 1	
		4		7	
	1			5	3

정답

8	7	6	1	8	2	9	9	
2	6	1	9	2	9	8	7	8
9	9	8	8	7	2	6	2	1
8	1	7	9	2	2	9	6	8
9	2	8	1	9	6	2	8	7
6	2	9	8	8	7	9	1	2
2	8	2	7	9	9	1	8	6
7	8	9	2	6	1	8	2	9
1	9	6	2	8	8	7	9	2

2	8	6	9	8	7	9	1	2
2	9	9	2	8	1	7	6	8
8	7	1	9	2	6	8	9	2
9	6	2	8	1	9	2	8	7
7	1	9	8	9	2	8	2	6
8	2	8	7	6	2	1	9	9
9	9	2	2	7	8	6	8	1
6	8	8	1	2	9	2	7	9
1	2	7	6	9	8	9	2	8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4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